



'빼빼로데이'(11일)를 이틀 앞둔 9일 초등학생들이 광주시 동구 총장로 한 집화점에서 화려하게 포장된 빼빼로를 고르고 있다.

동심 홀리는 '데이 마케팅'

빼빼로·초콜릿 포장값 천정부지 ... 학부모들 괴로워

회사원 강모(27·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얼마 전 7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크게 싸웠다. 이를 앞으로 다가온 11일 '빼빼로데이' 때문이다. 평소 각종 '데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던 강씨가 여자친구에게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빼빼로 선물은 생략하고 차나 마시자"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강씨는 여자친구로부터 "1년에 한번 뿐인 날을 꼭 그렇게 보내야 겠느냐. 빼빼로 값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인가"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강씨는 곧장 "그런 의미가 아니다"며 달래봤지만, 여자친구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았다.

그야말로 '데이(day)'가 난무하는 시대다. 오는 11일 빼빼로데이 등 1년에 20차례가 넘는 각종 기념일들로 인해 연인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곤혹기까지 하다.

'매년 한 차례씩 연인 또는 친구들과 작은 선물을 교환함으로써 관계를 둔독히 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의례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기념일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 과거 좋아하는 이상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하는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매년 2차례에 불과했던 기념일이 이제는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난립'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연인들에게 기념일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서로에게 선물을 줘야하는 일종의 '의무'처럼 왜버린 것이다.

특히 '데이의 의무화' 현상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면서 이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최모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여·38)씨는 "얼마 전 아들이 '빼빼로데이에 여자친구에게 줄 빼빼로를 사야 하니 용돈을 달라'고 해서 5000 원을 줬더니 '3만원을 달라'고 말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는 평소에는 잘 팔리지도 않는 빼빼로나 초콜릿 제품이 '데이'라는 말과 함께 바구니 또는 상자에 담기는 순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기존에 저렴하게 팔리던 제품이 해당 제품을 선물하는 '데이'가 가까워지면서 포장을 더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결국 '데이'가 즐거운 사람들은 연인이나 친구가 아닌 선물로 활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판매자인 셈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심화·야간자율학습 폐지 교장·학부모 뜻 따라 결정"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현직교사 과외 적발 땐 퇴출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9일 고교의 심화학습과 야간자를 학습에 대해 "일선 학교 교장들과 협의하고 내년 초 (교장과 학부모 등의) 희망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취임인사차 광주시청을 방문해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장 교육감이 선거 구호로 내세웠던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반대'가 무조건적인 폐지로 비춰지는데 선을 긋고, 학교·학부모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 교육감은 8일 취임인터뷰에서도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실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교장 재량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 건강과

능률 면에서 어느 쪽이 좋은지 교장들과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학부모들이 야간자율학습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야간자율학습이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장 교육감은 현직 교사의 과외와 관련,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아웃(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주에서 고액과외 교사의 상당수가 현직 교사다"는 지적에 대해 "현직 교사의 과외 사실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직교사가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당연히 바로 아웃이죠"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초·중·고 교장 12명 공모

내년 3월에 임용

전남도 24명 공모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3월 임용될 초·중·고 교장 12명에 대한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9일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 8명, 중학교 2명, 고교 2명 등 모두 12명의 공모교장을 선발키로 하고 8일부터 12일까지 대상학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남도 교육청도 초등 16명, 중등 8명 등 모두 24명을 공모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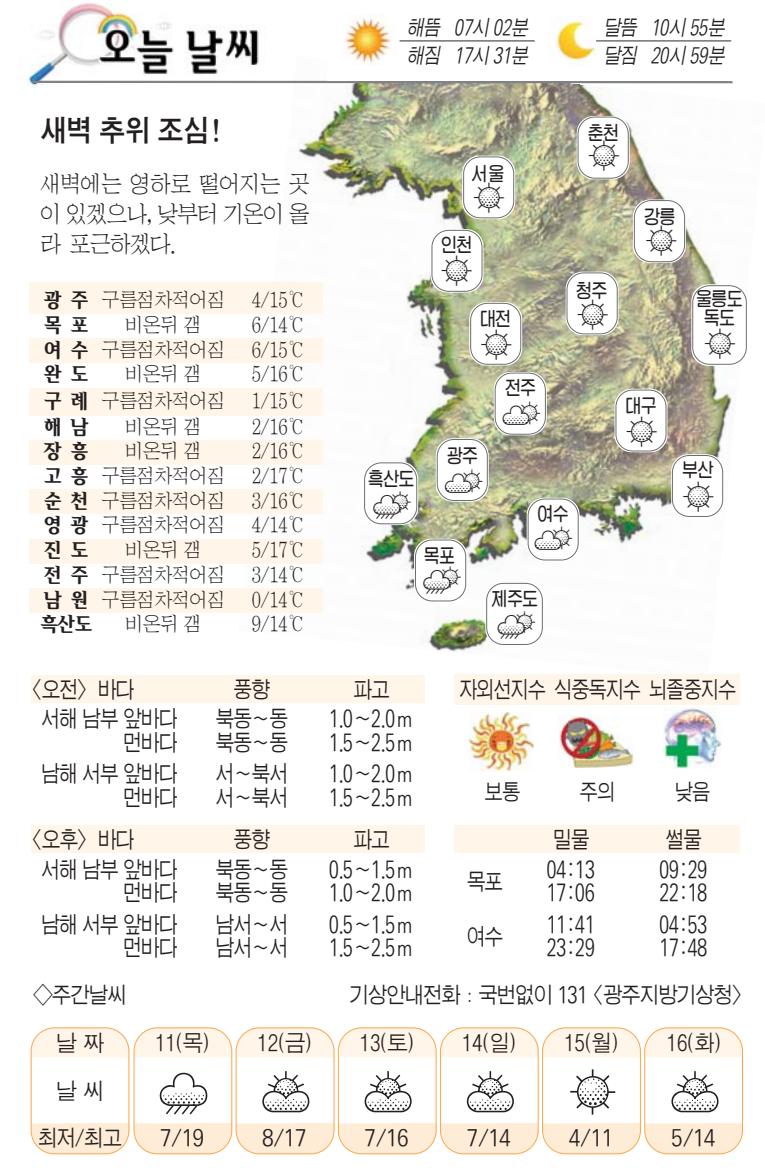
시 교육청의 교장 공모인원은 내년 2월, 8월께 정년퇴임으로 교장결원이 예상되는 학교의 40% 선으로, 교과

부가 제시한 50% 보다 10% 포인트 낮은 비율이다. 교과부가 제시한 50%에서 교육청 사정을 감안해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때문이다.

시 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교과부에 교장·교장 공모대상학교를 통보한 뒤, 12월 중순까지 1차 학교운영위원회 및 2차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내년 1월 임용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교장을 공모하려는 학교는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교육청에 공모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공모 교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4년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138명 보다 17.39%(24명) 감소했다. 2007년 152명보다는 25%(38명) 줄었다. 사망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 단속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천만인 서명운동·선진 교통문화 정착 범시민 대회 등으로 인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순천점(061)752-9940
목포점(061)262-9200
익산점(063)851-2422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사랑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안내

2010.11.5 (금) ~ 11.12 (금)



- ◎ 제1차 본회의 : 2010. 11. 5
 - 개회 및 회기 결정
- ◎ 상임위원회 활동 : 2010. 11. 8 ~ 11. 11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조례안 등 안건심사
- ◎ 제2차 본회의 : 2010. 11. 12
 - 안건처리

정읍시의회
www.jcc.or.kr

